

# 응급진료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 이 근 수

〈목포 성골롬반병원 응급실장〉

최근의 산업화나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잇따른 교통사고와 산업 재해로 인한 응급진료를 요하는 환자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런 환자를 위한 병원은 전국적 규모로 늘어나고 있는 있지만 응급구조요원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대부분 지나가는 차량이나 119 구급대에 의해서만이 차량 후송이 이루어지고 지난 해에는 이런 점을 보완코자 응급진료센터 및 응급지정병원을 지정하고 무선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129 응급환자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고지점에서의 구급요원에 의한 응급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행상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보완책을 연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간도 환자의 생사에 매달려서 열심히 진료하는 응급실 근무자는 분명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신문, 방송은 이들을 인명을 경시하는 사회의 한 부류로 보도하기도 한다. 분명 응급실 근무자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사회 전반적으로 불신이 관련된 까닭으로 사료되어 진다.

응급진료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인이 평상시에 생각한 바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아울러 기술해 보면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

### 1. 응급실 근무자의 근무시간

일반 단순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도 근무시간이 지

켜지는데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게는 특히 수련의나 전공의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휴일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이 분명치 않아서 만성 피로에 쌓여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자기 희생과 봉사 정신이 없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는 기대는 어려운 일이다. 병원 당국에서는 Intern 개념이 아닌 Extern 개념으로 수련의를 모집하여 이들의 건강하고 밝은 미소와 여유있는 친절함 속에서 환자 진료를 하게끔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근무자의 자세

응급실을 찾는 거의 모든 환자는 응급실에서 만나는 의료진마다 자신에게 한마디라도 더 해주길 바라며 따뜻한 미소 한번 더 주기를 바란다. 반면 자신에게 행해지는 진료 행위에 대해서 무감각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약간은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울 것이다. 또한 병원이 두려운 곳이 아니고 의료업도 존경스러운 직업인이 아니라는 일반인의 가치 기준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응급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은 이런 환자들의 요구를 잘 받아들이고 적절한 진료를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의료행위를 의료서비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사용되는 만큼 상품화된 친절이 아닌 자연스러운 친절로 진료를 해야 할 것이다.

### 3. 환자와 보호자와의 대화

병실 근무자는 환자가 퇴원시 미소와 함께 “고맙습

이 글은 1992년 10월 23일 개최된 본 협회 제 48차 세미나에서 발표한 강연을 요약한 것입니다.

니다”라는 말로 보람을 느끼지만 응급실에서는 이런 상황이 좀체 없다. 응급진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한 환자와 의료진 사이에서 오갈 수 있는 대화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처치후 곧바로 귀가 조치하거나 입원하기 때문이다. 검사 소견이나 방사선 소견을 기다리는 동안 환자 상태가 더 악화될 시는 보호자의 그 반응은 민감하다. 특히 주사나 처치 등으로 좋아지지 않을 시는 더욱 난감한 상태를 야기한다. 의료인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한 처치 및 검사 행위가 한미다 상황 설명없이 행해지는 진료 행위 자체는 환자나 보호자를 불안케하고 조급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처치 행위를 하기 전에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현재 상태를 될 수 있으면 상세히 설명하고 그에 필요한 처치 및 검사라는 점을 이야기 해야 할 것이다.

#### 4. 체계적인 진료

응급실 담당 의사는 대개가 수련 병원에서는 수련 의가 근무하는데 이들은 아직 미숙한 점이 많아서 처치 행위나 처방은 물론 진단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원에서 초진은 수련의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양질의 진료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근무자는 자신의 의학적인 지식이나 능력을 위해서 스스로가 처리하려고 하는 욕심과 각과 전공수련의의 바쁜 일과가 맞물려서 그들의 진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는 병세 자체가 중하고 유독하기 때문에 내원한 점을 염두에 두고 될 수 있는 한 많은 정보를 찾아 내기 위해서는 성실한 History와 세심한 Physical examination을 실시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전공수련의나 Staff의 지도하에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배우는 근무자의 자세일 것이다. 응급진료의 3대 요소중 하나가 연계성인데 응급실 담당 의사와 각과 전공의 및 전문의와의 유기적인 체계를 위하여서도 당직자는 될 수 있으면 정위치를 지켜야 한다.

#### 5.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응급실은 주기적으로 문제점이 있었던 환자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러한 평가 자체가 심사를 받기 위한 피상적인 교육이 될 가능성이 많다. 여유가 없을 정도로 바쁘게 돌아 가는 상황에서도 서로가 문제점에 대해서 토의함으로써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겠다.

응급실 당직 의사는 전담 근무자가 아니라 수련 계획에 의해서 일정기간 근무하는데 새로 근무가 바뀐 근무자는 응급실의 장비와 시설, 상황을 알고 그 장비의 취급 요령을 숙지하고 작동 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주로 내원하는 질병의 유형에 대해서 전 근무자로부터 정보를 습득하여 나름대로의 지식을 취득해야 할 것이다.

#### 6. 응급실 전용 병상

특히 종합병원, 대학병원 단위에서 심각한 점은 병실 응용이다. 하급 단위에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복합적인 질병이 겸한 환자는 부득이 상급 병원을 이용하게 되는데 병실 부족이 심각한 문제이다. 보사부에서는 3차 진료기간은 평균 응급진료 병상수를 20, 종합병원(수련) 11, 일반병원 7 병상을 응용토록 하지만 이 숫자는 일반 병실에 있어서 여유가 있을 때에는 가능하지만 일반병실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절대 부족하다. 그러므로 병원 당국에서는 여유분의 병상을 응용할 수 있을 정도의 병실 설치가 급선무일 것이다. 응급실내에서 검사실이나 방사선과의 응용 또한 응급환자의 동선을 줄임으로써 응급의료 진료에 도움이 될 것이며 간단한 처치 및 수술을 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의 설치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 7. 전원 조치하는 환자

병원측의 문제나 환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환자를 전원 조치할 때는 응급전달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겠다. 응급정보 센터를 이용하여 전원되는 병원의 환자수용 능력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바로 진료와 함께 치료받게 하는 것도 응급실 근무자의 의무라 할 수 있다. 또한 응급환자 이송 의뢰서를 작성시 당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나 처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함으로써 불필요한 검사로 인해 응급진료를 지연시키는 일도 없어야겠다. 또한 될 수 있으면 후송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할 능력있는 의료진

의 탑승 또한 중요할 것이다.

## 8. 전문한 Pre-hospital care

Pre-hospital care는 교통사고나 산업 재해 등으로 발생한 환자의 응급 진료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특히 골절환자, 출혈환자, 척추 손상 등의 환자에서는 사고 지점에서 소홀히 함으로서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사고 발생시 신속한 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받은 구급요원의 도착시부터 신속한 구급 진료를 시작하는 선진국형 응급진료를 위해서 구급 요원을 양성하여야 한다. 현재 병원에서 약간의 구급법 정도의 교육을 받은 엠브런스 기사가 있는데 이는 체계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환자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전문대학 내에 다른 의료기사와 같은 전문 구급기사를 교육함으로써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 또한 후송 체계에 있어서도 국가적 지원을 통하여 기동력 있는 신속한 후송체계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9. 응급의학과

인간 생명을 위하여 땀흘리는 의료인이 살인죄로 구속된다는 것은 법 적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으나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까지 미치게 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자성해 보아야겠다. 의료 분쟁 또한 의료진과 환자와의 사무적인 대화나 그나마 단절된 대화속에서 파생된 신뢰성 부족의 소산일 것이다. 불만과 불신이 만연한 현세대의 풍속도가 되었다지만 고귀한 생명을 다루는 인술에까지 영향이 파급되는는 안될 것이다. 응급진료에 있어서도 수련의나 일반의의 중심에서 생길 수 있는 오진, 미숙함이 일반인의 불안을 조장하고 불신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응급진료도 이제 응급의학과 과정을 수련한 전문의와 전공의에 의해서 신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행해질 때에 좀더 효율적인 응급진료가 이루어질거라고 생각한다.